

참고자료:

- [1] OECD, *Telecommunications Outlook 1999*, 1999, pp.40~41.
- [2] 이명호 외 12인, 『통신사업 현안에 관한 종합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998. 12.
- [3] 정보통신부, 『별정통신사업이 기존 통신사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99. 2. 9.
- [4] 「정통부, 인터넷무료전화 별정통신사업으로 허용」, 『동아 닷 컴』, 2000. 1. 25.,
<http://www.donga.com/>
- [5] 「2004년엔 전기선 이용 인터넷 접속한다」, 『매일경제신문』, 2000. 1. 17.
- [6] 「인터넷 무료전화서비스 ‘봄」, 『한국경제신문』, 2000. 1. 21.
- [7] <http://www.dialpad.co.kr>
- [8] <http://www.truephone.com>
- [9] <http://www.freewebtel.co.kr>

영국의 가입자선로에 대한 망세분화 허용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곽정호
(T. 570-4123, jhkwak@sunset.kisdi.re.kr)

1. 개 요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정책으로 통신서비스 달성의 필수설비인 가입자망(local loop)을 경쟁사업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망세분화(unbundling)의 허용문제는 각국에서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었다. 영국은 망세분화를 통한 서비스 기반경쟁(service based competition)은 경쟁의 초기단계에서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설비기반 경쟁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영국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99년 12월, 통신규제기관인 Oftel은 가입자선로의 망세분화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2. 망세분화(unbundling)의 도입과정

Oftel이 망세분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원인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전송기술의 급속한 확장으로 망고도화를 달성할 유인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며, 망세분화의 조건으로 DSL(digital

subscriber loop) 기술을 검토하였다. 즉, BT의 가입자 회선이 가정고객 및 기업고객의 85%를 제공하고 있지만 음성이나 기본적인 데이터통신과 같은 협대역(narrowband)서비스에 그치고 있으므로 ADSL의 급속한 확장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접속과 같은 광대역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Oftel은 '98년 12월에 1차 자문서¹⁾를 발표하여 BT의 가입자망에 대한 언번들링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Oftel은 자문서에서 BT의 가입자선로 망세분화(unbundling)와 관련하여 접속방식에 따라 5가지의 Option을 제안하고 각 안에 따르는 Comment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99년 7월, Oftel의 2차 자문서가²⁾ 발표되었다. Oftel은 고속 데이터통신을 위한 가입자망 고도화에 기초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망세분화를 시행하기로 초기 결정하고 Option2³⁾를 선택하였다. Oftel의 초기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BT(British Telecom)는 가입자망을 고도화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하고, 기술변화에 대처한다는 Oftel의 기본입장에는 동의하였으나, Option2는 경쟁사업자가 일반 이용자(residential)시장보다는 대규모 사업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함으로써 망고도화와 소비자의 편익확대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타서비스와의 상호간섭을 피하기 위한 스펙트럼 관리(spectral management)등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유발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다수의 통신사업자(network operators)들은 광대역 가입자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BT가 망고도화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경쟁사업자가 BT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Option2의 부과가 제공서비스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지지하였다. 전문가 Group은 광대역 가입자망에 대한 망세분화(unbundling) 이전에 기술표준 및 음성, 데이터의 분리, 과금 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전국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Oftel의 최종 결정

상기와 같은 논란속에 Oftel은 '99년 12월에 최종 Statement를 발표하며 망세분화의 허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시내가입자회선(unbundled loops)과 Co-location은

- 1) Access to bandwidth: Brining higher bandwidth services to the consumer, Oftel, Consultation Document, 1998. 12.
- 2) Access to bandwidth: Proposals for action, Oftel, 1999. 7.
- 3) BT의 가입자 회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망세분화(unbundling)하여 임대하고 경쟁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망고도화에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장점을 지님

상호접속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망세분화의 세부적인 대안으로 Option2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BT는 자신의 가입자선로를 타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고속서비스시장에서 직접적으로 BT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둘째, 망세분화의 가격산정방안은 “LRIC + 회선 및 BT의 기타서비스 공통비용을 고려한 mark-up”으로 결정하여 “Retail minus” 방식의 망구축 저하 문제를 보완하였다. 셋째, 지리적 균등(Geographic averaging)에 의한 표준요금을 규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현재 BT의 음성전화 가입자 회선의 기본료(Line Rental)는 지리적으로 평준화되어 이용자의 지리적인 차이에도 동일요금을 받고 있지만 ADSL 회선은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요금의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가격산정방안은 LRIC를 기반으로 하고 요금은 BT의 상업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결정된 것이다. Oftel은 Option2를 통한 망세분화가 ADSL의 상업적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도입은 BT의 사업권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여 BT에게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Oftel은 2000년말까지 Option2 서비스의 완벽한 시험과 2001년 7월의 서비스개시를 위하여 Co-location과 Order handling과 같은 운영적 절차에 대한 지침, 회선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파수관리계획에 대한 권고문, Option2와 Co-location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 [1]곽정호, 「영국의 망세분화 도입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9. pp.20~37.
- [2] Access to bandwidth: Brining higher bandwidth services to the consumer, Oftel, Consultation Document, 1998. 12.
- [3] Access to bandwidth: Delivering competition for the information age, Oftel, 1999. 12.
- [4] Access to bandwidth: Proposals for action, Oftel, 1999. 7.